

## 중국 인터넷 공간에서의 코로나19 담론 연구\*

손주연\*\*

### — 목 차 —

1. 들어가며
2. 팡팡의 『우한일기』가 뿌린 씨앗
3. 두 번의 시위가 낳은 변화
4. '은닉 대본' 으로서의 코로나19 담론
5. 나가며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팡팡(方方)의 『우한일기(武漢日記)』, 마스크 시위, 그리고 한 의사의 인터뷰가 국가 검열에 의해 삭제되자 네티즌들이 다양한 판본을 만들어낸 사건을 중심으로 코로나19를 둘러싼 중국의 인터넷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의 권력 관계 이론에 따르면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로 기능하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논의가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어떠한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와 대중 사이의 길항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키워드:** 코로나19, 팡팡(方方), 우한일기(武漢日記), 마스크시위, 마스크문화, 놀이로서의 저항

\* 본 논문은 2021학년도 목포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목포대학교 중국언어와문화학과 조교수

## 1. 들어가며

2020년 새해가 시작되면서부터 퍼져나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는 전세계를 멈춰 세웠다. 2019년 12월 1일, 중국 우한(武漢)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이후 코로나19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다. 세계 각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속출하자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이하 ‘WHO’)는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였다. 우리말로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을 뜻하는 팬데믹은 모두를 뜻하는 그리스어 ‘pan’과 사람이라는 의미의 ‘demos’가 결합된 개념이다.<sup>1)</sup> 이는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단계 중 최고 수준이기도 하다. 뒤늦은 팬데믹 선언이라는 비판 속에서 세계는 “코로나19에 대한 음모설이나 각종 허위 정보가 확산되는, 이른바 ‘인포데믹(infodemic)’”현상으로 더 큰 혼란을 겪게 되었다.<sup>2)</sup> 감염병의 확산과 함께 특정 국가나 인종에 대한 혐오가 번져나갔고, 나라마다 각자 겪고 있었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2020년 1월 23일, 중국 정부는 첫 발병지인 우한시를 봉쇄했고, 우한의 시민들은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다. 극한 상황에서 중국의 인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우한 봉쇄를 직접 경험한 작가 팡팡(方方)은 중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SNS 플랫폼인 웨이보(微博)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이는 즉각 중국 네티즌들의 긍정적·부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우한 중신의원(中心醫院) 의사 리원량(李文亮)의 죽음과 같은 병원 의사인 아이편(艾芬)의 인터뷰가 검열을 당한 것을 두고 네티즌들은 ‘언론자유’를 요구한 SNS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1) 네이션 울프 지음, 강주현 옮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2판』, 파주: 김영사, 2015, p.125.

2) John Zrocota, *How to Fight an Infodemic*, World Report, Vol. 395, Issue 10225, Feb.29, 2020, p.676.

코로나19의 창궐을 둘러싼 중국의 일련의 반응들을 보면, 현재 중국이 급격한 변화의 물결을 체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첫째로, 인터넷의 발달로 중국 인민들은 인터넷 공간을 새로운 토론의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핸드폰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기술은 중국 인민들의 일상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위챗(Wechat, 微信) 사용자들은 모바일 메신저 기능을 중심으로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만, 이 안에는 게시판 기능을 하는 모먼트(朋友圈)가 있어 자신의 소식을 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포스팅을 공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웨이보, 바이두(百度) 게시판 등 자신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났다. 코로나19 이후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들의 인터넷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광광은 웨이보 플랫폼에 일기를 올렸고, 이에 대한 평론과 갑론을박 역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졌다. 정부의 검열로 인해 삭제된 광광의 일기들은 중국의 방화벽 밖에서 제목에 ‘완전판’이란 꼬리표를 달고 전파되고 있다.<sup>3)</sup> 리원량의 죽음과 아이편의 인터뷰 기사가 검열을 당한 소식 역시 인터넷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으며, 그에 대한 반응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중국에서 인터넷 공간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 받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인민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둘째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정부 시스템과 사회 체제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2002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이하 ‘SARS’)의 최초 발병 당시 중국 정부는 WHO에 보고를 약 4개월 동안 미루는 등 매우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이는 많은 중국인들이 중

3) 현재까지 광광의 『우한일기』는 중국에서 정식으로 출간된 바가 없다. 중국어 원문은 Google Play에서 ebook의 형태로 구입하여 볼 수 있으며 자유언론을 지향하는 China Digital Times(中國數字時代)와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차이신(財新)에서 원문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

(<https://chinadigitaltimes.net/space/方方日記>, [http://mapp.caixin.com/m\\_topic\\_detail/1489.html](http://mapp.caixin.com/m_topic_detail/1489.html))  
해외에서는 2020년 5월 30일 독일어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며 2020년 6월 영어 번역본이, 2020년 9월에 일본어 번역본이 출간되었고 한국어 번역본은 2020년 12월에 출간되었다.

국 정부의 감염병 대응 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들어 중국 정부에서는 본격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하기 시작하고, 이후 위생부 장관을 경질하며 관련 부서를 정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인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불만은 중국 내에서 정보공개법을 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한 중국 인민들은 SNS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SARS와 같은 위기에 대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한 SARS 위기는 그간 중국 내에서 계속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었던 HIV/AIDS에 대해 중국 정부가 더욱 능동적인 대응을 펼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01년 기준 중국 정부는 HIV/AIDS 감염자 숫자를 30,736명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추정치의 4%를 하회하는 수치였다. SARS 위기를 겪은 후에야 중국 정부에서는 Post-2003 체제라 일컬어지는 체제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였다.<sup>4)</sup> 각종 감염병에 대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중국 인민들은 중국 정부가 향후 발생할 미지의 감염병들을 적절하게 방어할 것이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1월 29일 우한에서 폐렴으로 추정되었던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중국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며 사태를 축소 및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발견되었다. 특히 2019년 설 연휴(2월4일~6일)를 앞두고 중국 내에서 인구 이동이 잦은 상황 속에서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막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人不傳人, 可控可防)”는 전문가들의 판단은 팬데믹을 초기에 진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정부의 미온적 대응은 결국 1월 23일 우한시 봉쇄 조치로 이어졌다. 많은 인민들은 분노하였고 중국 사회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흔들리기에 이르렀다.

오늘날 기술 발전으로 인하여 시간과 공간이 급속도로 압축되면서, 특정 지역에서 발현된 감염병의 파급력 역시 급속도로 강해지고 있다. 21세기 들

4) Huang, Y. *The Politics of HIV/AIDS in China*, Asian Perspective, 30(1), 2006, pp.96~103.

어 SARS를 비롯하여 AIDS, 코로나19 등 여러 변종의 감염병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며 개개인의 일상으로 깊게 침투하고 있다. 특히 인구수가 많고 여러 감염병의 진원지로 지목된 중국은 특히 더더욱 그러하다. 코로나19가 기존의 팬데믹과 다른 점은 통신기술의 발전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정보 및 의견의 교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다양한 문제의 해결을 인터넷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19라는 병리적 현상 외에, 코로나19를 주제로 한 인터넷 공간에서의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었다. 이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논의가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어떠한 담론을 생산해내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 중국 정부와 대중 사이의 길항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2. 팡팡의 『우한일기』가 뿌린 씨앗

2019년 12월, 우한에서 폐렴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중국정부는 12월 31일에 이르러서야 WHO에 이와 관련된 첫 공식 보고를 올린다. 이후 1월 9일, 우한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바이러스는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1월 13일 태국, 1월 16일 일본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모두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이었다. 1월 22일에 이르자 사망자는 총 17명, 확진자가 500명에 달해 중국정부는 적극적 통제가 필요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 결과 1월 23일 우한시 전체를 봉쇄하게 된다.<sup>5)</sup> 그로부터 이틀 뒤인 1월 25일, 봉쇄된 우한에서 격리생활을 시작하게 된 팡팡은 웨이보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다.

5)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과정은 “타일러 J. 모리슨 지음, 홍유진 옮김,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과주: 열린책들, 2020년” 참고.

감염율과 치사율이 높지만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전파에 전세계가 놀라기 시작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급작스럽게 우한에 갇힌 1,100만 명의 시민들은 더 큰 공포를 맞닥뜨려야 했다. 바깥 세상과 단절된 우한 시민들은 누군가 자신들이 격리되어야만 하는 이 사태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기를, 그리고 자신들의 답답함을 풀어주고 두려운 마음을 위로해줄길 바랐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팡팡의 『우한일기』는 우한 시민들이 정보를 얻는 주요한 통로이자 울분을 대변해주는 장이 되었다.<sup>6)</sup> 팡팡은 이전에도 웨이보 계정이 검열에 의해 차단된 경험이 있다며, 자신의 일기가 언제 삭제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우한 시민으로서 느끼는 분노를 솔직하게 다룬 팡팡의 일기는 연재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검열에 의해 지속적으로 삭제되고, 웨이보 계정이 차단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팡팡은 일기 쓰기를 그치지 않고 작가 열상(二湘)<sup>7)</sup>에게 부탁하여 열상의 위챗 공식 계정(公眾號)을 빌어 일기를 지속적으로 업로드 한다.<sup>8)</sup> 그리고 팡팡의 일기에서 다룬 몇 가지 사건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는

6) 팡팡은 『우한일기』 한국어판 ‘작가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수천만 독자가 매일 한밤중까지 기다렸다가 내 하루의 기록을 읽어주리라라고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수많은 이가 내 글을 읽은 후에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다고 말해주었다.” 우한이 봉쇄된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우한일기』에 의지했음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팡팡 지음, 조유리 옮김, 『우한일기』, 파주: 문학동네, 2020년, p.10.

7)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소설가. 대표작으로 2017년에 발표한 『광류(狂流)』가 있다.

8) 3월 19일 일기에서 팡팡은 “나는 소설을 쓴다는 것 외에 열상에 대해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고, 서로 대면한 적도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열상이 팡팡의 일기를 대신 업로드 해 준 것은 “공식 계정을 가진 작가가 공식 계정을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노년의 작가를 도와 글을 올려준 것 뿐”이라 말한다. 열상 역시 「팡팡일기 편집수기-아름다운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녀를 위해 정의의 면류관을 남겨둔다」라는 글을 통해 팡팡 일기를 대신 업로드하게 된 경위를 기록했다. 열상이 대신 올린 일기들 역시 아주 빠른 속도로 삭제되었기에 열상은 자주 쓰지 않는 계정으로 일기를 올리기 시작한다. 알려져 있지 않은 계정이기에 처음에는 조회수가 만 단위에 그치다가 이후에는 일기를 올릴 때마다 한두 시간 만에 1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成了一個現象)’고 밝힌다. 특히 아이핀(艾芬)의 인터뷰를 다룬 일기는 35분만에 1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였다.

『우한일기』를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이어지게 된다.

『우한일기』는 작가 팡팡의 일상, 코로나19와 관련된 크고 작은 뉴스, 그리고 그에 대한 팡팡의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것 같은 팡팡의 일기 중에서 비교적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2020년 1월 30일. 싱가포르 국적의 팡팡 조카가 경찰차를 타고 출국한 사건. ② 2020년 2월 13일. 주인이 사망한 핸드폰 더미의 사진을 팡팡이 언급한 사건. ③ 2020년 3월 23일. 간호사 량샤오샤(梁小霞)가 과로로 쓰러졌는데 이를 두고 팡팡이 ‘사망했다’고 알린 사건.<sup>9)</sup> 이 외에도 크고 작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이 논의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웨이보에 업로드 되는 ‘팡팡의 일기’라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방식의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팡팡은 본인의 일기가 어디까지나 ‘일기’일 뿐이며,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들과 그에 대한 의견을 ‘기록’할 뿐이라고 곳곳에서 밝히고 있다.

나는 매일 몇 가지 일을 기록하며, 그 안에 내 생각과 감정도 함께 집어 넣는다. 이걸 정말 재미있는 일이다. 이걸 일기체로 쓰는 순수한 사적 기록이다. 본래부터 웅대한 서사는 불가능하고, 감염병 상황 속의 모든 인간사를 기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문학청년처럼 열정적인 문장을 쓰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 이걸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 마음속의 회로애락을 적어내려간 글일 뿐이다. 뉴스도 아니고 소설은 더욱 아니다. 이런 회로애락의 감정이 남들과 같을 수 없고, 모두의 기준에 부합할 수도 없다. (2월 28일 일기)<sup>10)</sup>

<https://chinadigitaltimes.net/chinese/639585.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9) 팡팡 『우한일기』가 불러 일으킨 주요 논쟁과 팡팡을 둘러싼 혐오의 정동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김태연, 「팡팡의 『우한일기』와 혐오의 정동(affect)」, 중국현대문학 제97호, 2021년”참고. 김태연의 논문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대체로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지 궁금하다는 팡팡의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10) 팡팡, 앞의 책, pp.233~234.

“我每天記錄一點事情，並在同時加入一點想法和情緒，我覺得很有意思。這是一份純粹的個

예전에 소설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문학은 개인의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무수한 개인의 표현이 모이면 그것은 민족의 표현이 되고, 민족의 표현이 여럿 모이면 그게 바로 한 시대의 표현이 된다. 같은 이치로 개인의 기록은 보잘것없고 전체적인 상황을 다 담기에는 부족하지만, 무수한 개인의 기록이 모이면 아마 전체적인 진실을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4일 일기)<sup>11)</sup>

광광 자신도 인지하고 있듯이 광광의 일기는 전해들은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을 뿐, 그 이야기가 ‘사실(fact)’인지는 알 수 없다. 광광이 전하는 이야기들은 모두 이름을 밝힐 수 없는 4명의 의사 친구와 인터넷에서 ‘사실이라고 전해지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광은 많은 네티즌들에게 ‘유언비어 유포’를 이유로 비난을 사게 된다.<sup>12)</sup> 이희경에 따르면 광광과 네티즌들의 갈등 속에서 광광의 경우 ‘진실’·‘인민’·‘양심’ 등 다분히 계몽적 관점에서의 용어들을 비중 있게 사용한다. 반대로 광광을 비난하는 광광 안티들은 ‘진실’을 “자신들의 억지스런 주장을 견지하기 위해 사용되거나 정부에 의해 이뤄지는 일련의 조치들을 긍정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광광과 네티즌들의 의견은 영원히 일치를 보지 못한다고 밝힌다.<sup>13)</sup>

人記錄, 以日記體的方式。它本來就不可能宏大敘事, 也不可能記下抗疫中所有的人事, 更不可能用文青們熱衷的語言。它就是隨心所欲式的, 把我自己內心的喜怒哀樂寫下來而已。不是新聞, 更不是小說。而這種喜怒哀樂的情感, 不會跟所有人相同, 也不會符合每個人的標準。”

(<https://chinadigitaltimes.net/chinese/640361.html>)

11) 광광, 위의 책, p.270.

“而這每一份記錄, 都很珍貴。以前談小說時, 我說, 文學雖然是一種個人表達, 但無數的個人表達匯集一起, 便是一個民族的表達; 而無數個民族的表達匯集一起, 那便是一整個時代的表達。同理, 一個人的記錄, 微不足道, 更不足概括全貌, 但無數個人的記錄, 匯集一起, 真相便會以全方位形態露出水面。”

(<https://chinadigitaltimes.net/chinese/639778.html>)

12) 광광 일기의 ‘진실성’을 두고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베이징대학(北京大學) 교수 장이우(張頤武)다.

13) 이희경, 「우한일기 논쟁을 통해 살펴본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 『감성연구』 제23집, 2021년, pp.125~129.

표면적으로 드러난 갈등은 광광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어난 ‘진실공방’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광의 일기를 둘러싼 갈등은 데이터 과잉 시대에 데이터 관리를 통해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으로 볼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사건이 뉴스로 인터넷에 업로드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한없이 짧아졌다. 문자 텍스트가 가지는 무게감은 한없이 가벼워졌고, 인터넷 공간은 데이터가 범람하는 공간이 되었다. 역설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서 진실과 거짓은 그 경계선이 더욱 모호해졌다. 그리하여 “데이터 과잉과 빅데이터 현실이 우리가 사회사적으로 분명하다고 믿는 사건이나 기록을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지위로 이끌게 된다. 이는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공적 담론의 장에서 자명한 질서이자 권위였던 특정 계급 혹은 지배 이데올로기”의 힘이 약화된다.<sup>14)</sup> 그 결과 사회 권력층은 한편으로는 “구조화된 통제와 관리의 시선”인 ‘감시(surveillance)’를 통해 “츰츰하고 조직적으로 시민을 집단 관리”하고 통제하고자 한다.<sup>15)</sup>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흘러넘치는 ‘가짜 뉴스’를 통해 인간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그 피로함의 틈을 파고들어 “인간의 내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은 욕망, 정서, 정동, 선호에 대한 흐름의 조절과 통제”에 관여하고자 한다.<sup>16)</sup>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해 중국의 국가 이미지는 크게 훼손되었다. 서구 국가들은 “코로나19 사태 원인 제공자라는 이미지”를 중국에 덧씌웠고, 팬데믹에 대한 책임을 중국에게 전가하려 했다. 또 중국 국내에서는 광광 일기를 둘러싼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태 조기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방역에서도 미흡한 모습을 보여준 중국 집권체제에 대한 실망이 팽배했다.<sup>17)</sup>

대외적인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외적으로 중국은 해외 방역 원조에 힘을 쏟았다. 그리고 대내적으로 국가 사회 체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두

14) 이광석, 『데이터 사회 비판』, 서울: 책읽는수요일, 2017년, p.100.

15) 이광석, 위의 책, p.81.

16) 이광석, 위의 책, p.102.

17) 김진공,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체제의 신뢰 위기」, 『중국어문학지』 제72집, 2020. p.231.

가지 노선을 취했다. 하나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추구하는 방향,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목표에 어긋나는 글들을 검열하여 삭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팡팡이 웨이보에 올리는 글들은 올리는 즉시 삭제되거나 계정이 폐쇄되었고, 일상이 위챗 공식 계정에 올린 글들도 신속하게 삭제되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정보들을 방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허위정보들의 범람은 정부를 향한 비난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기 위함이다.<sup>18)</sup> 팡팡을 둘러싼 논란은 팡팡 개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 팡팡이 하는 모든 말의 신빙성을 약화시키는 데 일조했다. 논쟁이 격렬해짐에 따라 중국인들의 관심은 팡팡이 중국 정부를 향해 제기한 의혹들에서 빠른 속도로 팡팡이 언급한 내용의 진위 여부로 옮겨갔다. 중국인들은 팡팡을 지지하는 자들과 비난하는 자들로 양분되어 논쟁을 벌였다. 논쟁이 진행됨에 따라 ‘애국’, ‘민족’과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애국주의 논쟁으로 변질되게 된다.

### 3. 두 번의 시위가 낳은 변화

팡팡의 『우한일기』를 둘러싼 논쟁의 특징은 ‘팡팡’이라는 작가, 혹은 팡팡이 쓴 일기를 두고 그것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비난하느냐로 양분되었다는 점이다. 팡팡을 지지한 자들과 비난한 자들 모두 중국에서 유명한 논객들이 다수였고, 중국의 네티즌들은 팡팡의 일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명한 자들의 글들을 다시 퍼다 나르며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해 나갔다. 팡팡의 일기를 둘러싼 논쟁은 중국 네티즌들의 개별적 움직임보다 유명한 인터넷 논객들의 주

18) 김진공은 앞의 논문에서 우한과 후베이(湖北) 지역을 향한 중국인들의 혐오를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우한과 후베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캠페인을 펼쳤지만, 자신에게 집중될 분노를 분산시키고 희석시켜주는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을 사실상 묵인하고 방치했다”고 말한다. 김진공, 위의 논문, pp.229~230.

장에 기대어 온라인 설전을 벌이는 형태로 발전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 네티즌들의 모습은 빠른 형태로 바뀌기 시작한다.

광광의 일기를 둘러싼 논쟁의 주제는 빠른 속도로 변질되었지만, 광광이 자신의 일기를 통해 뿌려놓은 정부 체제를 향한 의심의 씨앗은 다른 형태로 싹을 틔우기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리원량의 죽음이었다. 리원량은 중신의원에서 근무하던 안과 의사였다. 리원량은 2019년 12월 30일 오후 5시 43분, 위챗 단체 채팅방에서 “화난수산물시장(華南水果海鮮市場)에서 SARS 7명 확진. 우리 병원 응급실에 격리중.”이라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뒤 이어 오후 6시 42분, SARS가 아닌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인되었음을 알리며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한다. 당시 위챗 단체 채팅방은 약 150명 정도의 규모였고, 리원량은 임상병동의 동기생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해당 사실을 공유했다고 한다. 또한 이 사실을 외부에 유출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리원량의 이러한 메시지를 캡처한 화면은 순식간에 퍼져나간다.<sup>19)</sup> 1월 1일, 우한 경찰은 “일부 네티즌들이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글을 올리고 공유하며 사회적 파장을 조장하고 있다.公安 기관은 조사와 확인을 거쳐 8명의 위법자를 소환하였으며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1월 3일, 리원량은 ‘훈계서(訓戒書)’에 서명을 하고 자신이 유언비어를 조장했음을 시인하게 된다. 이에 대해 리원량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구류되지도 않았고, 벌금을 물지도 않아 훈계서에 서명한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와 근무했다고 밝힌다.<sup>20)</sup>

이후 1월 8일, 리원량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다 감염되었고, 1월 10일 증상이 발생되어 1월 12일 집중치료실로 격리된다. 그리고 2월 7일 새벽, 사

19) 覃建行, “新冠肺炎「吹哨人」李文亮：真相比平反更重要”, 『財新網』, 2020년 1월 31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131074029/http://china.caixin.com/2020-01-31/101509761.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20) 趙凱迪, “對話「傳謠」被訓誡醫生：我是在提醒大家註意防範”, 『新京網』, 2020년 1월 30일. <http://www.bjnews.com.cn/feature/2020/01/31/682076.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망한다. 리원량의 죽음으로 중국 인민들은 깊은 슬픔에 잠겼다. 리원량이 근무하던 중신의원 앞에 그의 사진을 놓고 헌화를 했으며, 웨이보와 위챗 포스팅을 통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애도의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은 얼마 지나지 않아 분노로 바뀌었다. 이는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막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는 말 대신 리원량의 말을 대신 전했더라면 코로나19로 인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분노였다. 또 이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었던 리원량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그를 처벌한 중국 정부를 향한 분노였다.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중국 인민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많은 포스팅이 게재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바로 ‘마스크 시위’였다.

마스크 시위는 리원량이 서명했던 ‘훈계서’에서부터 비롯되었다. 1월 3일, 리원량은 유언비어를 유포한 8명의 위법자 중 한 명으로 두 가지 질문에 친필로 대답한다. 첫 번째 질문은 “공안기관은 당신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민경의 권고를 따르는 것으로 위법 행위를 중지할 것을 바랍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까?”였고,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당신이 냉정하게 잘 반성하기를 희망하며, 정중히 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고, 반성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위법 활동을 계속한다면, 당신은 법률의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알아들었습니까?”였다.<sup>21)</sup> 이 두 가지 질문에 리원량은 “할 수 있습니다.(能)”, “알아들었습니다.(明白)”이라 대답한다. 여기에 착안해 네티즌들은 “할 수 없습니다.(不能)”, “못 알아들었습니다.(不明白)” 다섯 글자를 쓴 마스크를 쓰고 셀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다.<sup>22)</sup>

21) “公安機關希望你積極配合工作，聽從民警的規勸，至此中止違法行為，你能做到嗎？”

“我們希望你冷靜下來好好反思，並鄭重告誡你：如果你固執己見，不思悔改，繼續進行違法活動，你將會受到法律的製裁！你聽明白了嗎？”

“신종 코로나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이 작성한 '훈계서', 『뉴스1』, 2020년 2월 7일.

<https://www.news1.kr/photos/view/?4043722> (2022년 1월 10일 검색)

22) 이러한 이유에서 중국에서 이 시위는 ‘마스크 시위’가 아닌 ‘不能不明白 시위’로 일컬어진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편의상 ‘마스크 시위’로 통일한다.

리원량의 부고 소식이 전해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사건이 중국의 인터넷 공간을 뒤흔들어놓았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중신위원의 또 다른 의사 아이핀이 있었다. 아이핀은 중신위원의 응급실(急診科) 주임의사다. 아이핀은 12월 30일 오후 4시 환자의 검사 결과 보고서를 받아보게 된다. 그 보고서에는 ‘SARS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핀은 보고서의 해당 부분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고, 병원 내의 의사 단체 채팅방에 이를 공유한다. 그 보고서를 받아본 의사가 바로 리원량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리원량과 같은 ‘내부 고발자(whistle blower, 吹哨人)’가 아닌 ‘호루라기를 건넨 사람’(whistle giver, 發哨子的人)이라 말한다. 아이핀은 이 일로 리원량처럼 훈계를 받지는 않았으나 병원 감사과의 질책을 받게 된다. 이후 3월 10일 잡지 『인물(人物)』은 그녀의 인터뷰를 실는다. 2019년 12월부터 3월 10일까지, 그녀에게 일어난 일들을 인터뷰 한 내용이었다. 인터뷰 말미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월 21일 아침에 상사(아이핀을 훈계한 감사과의 상사)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사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 그날 제 잘못을 지적하셨는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저한테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감히 묻지 못했죠. 어떤 경우에도 저한테 사과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번 일로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서서 진실을 말하려면 반드시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이 세상에는 반드시 다른 목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죠?<sup>23)</sup>

23) “2월21號早上領導和我談話，其實我想問幾個問題，比如有沒有覺得那天批評我批評錯了？我希望能夠給我一個道歉。但是我不敢問。沒有人在任何場合跟我說表示道歉這句話。但我依然覺得，這次的事情更加說明了每個人還是要堅持自己獨立的思想，因為要有人站出來說真話，必須要有人，這個世界必須要有不同的聲音，是吧？”

龔菁琦，金石編，“發哨子的人”，《人物》，2020年 3월 10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329131444/http://boyamedia.com/category/detail/13249/>

(2022년 1월 10일 검색)

아이핀의 『인물』지의 인터뷰는 인터넷 상에 업로드가 되자마자 바로 검열로 인해 삭제되었다. 팡팡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되었을 때 차이신(財新), 위챗 등 다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으로 검열의 망을 피해갔던 것처럼 아이핀의 인터뷰도 검열의 망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게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방법으로는 검열의 망을 피해갈 수 없음을 인지한 중국의 네티즌들은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게 된다. 10일 하루 동안 ‘被 404’<sup>24)</sup>당한 뒤 11일부터 아이핀의 인터뷰는 다양한 ‘판본’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모티콘 버전, 모르스부호 버전, 갑골문 버전, 수어 버전, 한어병음 버전 등 현재까지 확실하게 알려진 것은 총 52개 판본이다.<sup>25)</sup>

리원량의 죽음이 유발한 ‘마스크 시위’는 많은 네티즌들이 분노를 표출한 사건이었다면, 아이핀의 『인물』지 인터뷰 판본은 놀이 혹은 오락으로서의 저항이라 볼 수 있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정부 당국의 검열을 피해가며 새로운 판본 만들기에 열중했다. 그 과정에서 문자의 형태로 표현되던 텍스트는 해제되고 이모티콘, 모르스부호, 바코드, 악보 등 다양한 텍스트로 등장하게 된다. 인터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새로운 판본을 생산해내는 행위로 네티즌들의 움직임은 예술적 창조 의 의미를 획득하였고, 공유를 통해 저항은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은 웃음을 유발하는 ‘오락’으로 다가왔다.

#### 4. ‘은닉 대본’으로서의 코로나19 담론

24) 검열로 페이지가 삭제되면 404 에러코드가 뜬다. “404 Not Found”.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요청한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이트 관리자에게 문의해 주세요.”라는 메시지가 뜬다. 중국의 네티즌들은 이를 두고 ‘404 당했다.(被404了)’고 표현하곤 한다.

25) 현재 이 52개 판본 또한 삭제되어 인터넷 상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한 네티즌이 구글 드라이브에 이 판본들을 정리해서 올려놓았다.

<https://blog.creaders.net/u/19770/202003/368208.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앞서 언급한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실패로 끝난 듯 보인다. 광광의 『우한일기』는 중국 국내에서 금서로 지정되었다. 광광과 관련된 논의들도 뚜렷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로 흐지부지 마무리된 양상이다. 리원량의 죽음을 둘러싼 마스크 시위 역시 중국 국내의 포스팅들은 모두 삭제되었고 소수의 자료들만 남아 있다. 아이핀 인터뷰의 다양한 판본들은 업로드 즉시 삭제되어 현재는 원본을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은 모두 우발적으로 발생한 단발성의 사건들로 볼 수만은 없다. 이 세 가지 사건들에서 우리는 중국 정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중국 인민들의 은밀한 내적 욕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임스 C. 스콧(James C. Scott)의 개념을 빌려온다면 이 세 가지 사건은 코로나19를 둘러싼 중국 인민들의 ‘은닉 대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콧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에서 권력관계를 분석하며 지배가 있는 곳에는 곧 저항이 있음을 강조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자는 피지배자에게 복종을 요구하지만, 피지배자는 복종을 ‘연기’할 뿐, 뒤에서는 자신들만의 언어와 몸짓으로 저항심을 표출한다. 스콧은 이를 ‘공개 대본’(public transcript)과 ‘은닉 대본’(hidden transcript)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 공개 대본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들 사이의 공개된 상호작용”<sup>26)</sup>이며 “지배자 면전에서 이루어지는 피지배자의 언설”<sup>27)</sup>이라면, 은닉 대본은 “권력자의 직접적 시선을 피해 ‘막후’에서 생성되는 언설”<sup>28)</sup>이라 할 수 있다.

은닉 대본을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권력의 행사 때문에 피지배자들의 공개 대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제되는 언설—몸짓, 언어, 관행—을 대변한다. 따라서 지배의 실체는 은닉 대본을 창조한다. 만약 지배가 유난히 가혹하다면 은닉 대본도 그에 상응해 풍성해진다. 결과적으로 피지배 집단의 은닉대본은 또 다른 하위문화의 형성에 의해, 그리고 그들

26) 제임스 C. 스콧 저,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서울: 후마니타스, 2020년, p.28.

27) 스콧, 위의 책, p.31. 여기에서 사용된 ‘언설’은 discourse의 번역어다.

28) 스콧, 위의 책, p.31.

의 방식으로 변형된 사회적 지배 형태가 지배 엘리트의 그것에 저항하는 과정에 의해, 공개 대본에 대응한다.<sup>29)</sup>

은닉 대본은 지배자들의 눈과 귀를 피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언행이 허용되는 공간에서 시도된다. 피지배자들은 공개 대본만이 허용된 공간에서는 복종을 연기하지만, 막후에 은폐된 공간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분노·욕망·환상을 표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은닉 대본은 “비혜게모니적·대위법적·저항적·전복적 언설을 위한 특권적 영역”<sup>30)</sup>이다.<sup>31)</sup> 또한 스콧은 피지배자들의 눈에 띄지 않는 교묘하고도 정교한 일상적인 저항을 ‘하부정치’(infrapolitics)라 부른다. 이는 “피지배 집단들의 베일 속 문화적 투쟁과 정치적 표현”<sup>32)</sup>이다. 다시 말하면, 지배에 대한 가시적이며 공개적인 저항 이면에는 ‘하부정치’라는 문화적·구조적 기반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은닉 대본과 하부정치는 대부분의 경우 막후에, 혹은 베일 속에 가려져 은폐되어 ‘은밀한 저항’의 영역에 남아 있다. 하지만 마치 수압이 높아지면 댐이 무너지듯 강압적 지배의 강도가 세지면 피지배자들은 은닉 대본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하면 위의 세 가지 사건들은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금 해석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공개 대본은 명확하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국이 아니며,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 대본에 따라 시진핑 주석은 2020년 9월 8일, 코로나19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사

29) 스콧, 위의 책, p.69.

30) 스콧, 위의 책, p.66.

31)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은닉 대본을 피지배자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배 권력 역시 공개 대본 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 역시 자신들만의 은닉 대본을 가지고 있다. 지배 계층 역시 공개 대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지배 계층도 공개 대본 이면에 자신들만의 저의가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 규범 앞에서 보다 더 많이 ‘연기’를 해야 하는 쪽은 피지배 계층이다. 피지배 계층의 은닉 대본이 더욱 두텁고 광범위할 수밖에 없기에 스콧 역시 피지배 계층의 은닉 대본을 분석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는다.

32) 스콧, 앞의 책, p.331.

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했다.<sup>33)</sup> 그러나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공개 대본 앞에서 대부분의 중국 인민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의 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정치적 전율(political electricity)<sup>34)</sup>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사건이 공개적으로 선언된 은닉 대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은닉 대본은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우선, 중국 정부의 눈에 팡팡의 『우한일기』가 위험한 이유는 국가 제시한 공개 대본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팡팡은 『우한일기』에서 시종일관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다. 팡팡이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코로나19 창궐 초기 감염병의 발생을 중국 인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감염병이 발생한 후 “사람 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 막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로 대처한 것. 이는 공개 대본에 허위성을 지적하며 지배 체제에 균열을 내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팡팡 스스로는 자신이 국가에 ‘저항’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팡팡의 일기는 일종의 ‘투덜거림(grumbling)’<sup>35)</sup>으로 볼 수 있다. 팡팡이 일기를 쓴 것은 국가 체제의 전복, 혹은 공개적인 저항에 있지 않았다.<sup>36)</sup> 팡팡은 시종일관 자신은 당

- 33) “중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MBC 뉴스, 2020년 9월 8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03617\\_32510.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03617_32510.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 34) 스콧은 은닉 대본이 처음 공개될 때의 충격을 전기에 비유한다. 이 때문에 역자는 전율을 戰慄이 아닌 電慄로 표기한다.
- 35) 투덜거림은 공개적이고도 구체적인 불평(complaint)을 순종하는 언어의 규정을 따르며 교묘한 형태로 자신의 불만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투덜거림을 통해 지배 계층의 귀에 가 닿을 정도로 자신의 반감을 표현하나, 그 방식이나 의도 면에서 공개 대본을 따르고 있으므로 쉽게 그 의도를 부인할 수 있다. 스콧은 이를 “얕은 베일에 가려진 반대 의사의 일환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콧, 앞의 책, pp.262~265.
- 36) 팡팡은 한 인터뷰에서 자신과 국가는 결코 ‘긴장관계’(張力)에 놓여 있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자신의 일기는 코로나19 방역 성공의 기록이기에 오직 국가에 도움이 될 뿐이라 주장한다.  
 “方方回應：我和國家之間沒有張力”，財新作家方方的博客，2020年4月11日.

과 국가의 지침을 충실이 이행하는 진정한 인민임을 강조하며, 국가 체제의 공개 대본에 용어를 빌려와 국가와 공무원이 ‘인민을 위해 복무(爲人民服務)’ 할 것을 요구한다. 팡팡의 『우한일기』가 정부가 제시하는 공식적 언설의 범위 내에서 작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팡팡의 일기가 지닌 전략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팡팡은 중국 정부의 지배 시스템을 비판하는 도발을 감행하면서도 정부가 표방하는 공식 규범을 지속적으로 긍정하고 있다. 비판의 화살은 중국 정부의 지배 이데올로기 그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잘못 행하는 정부 시스템과 ‘일부’ 공무원들을 향해 있다. 팡팡은 국가의 사회 체제가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sup>37)</sup>

그러나 지배 체제의 관점에서 팡팡의 『우한일기』는 공개대본의 허점을 명확히 짚어내 중국 정부 지배의 정당성(여기서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을 통제하고 사회 시스템을 원상 복귀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약화시킨다. 더군다나 팡팡의 일기는 인터넷의 강력한 전파력에 의지해 광범위한 대중들의 의견을 하나로 응집시킨다. 공개되지 않은 은폐된 공간에서 각자의 은닉 대본을 생산하고 있던 중국의 대중들은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러한 감정들을 공유한 것이다. 팡팡 개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팡팡의 일기는 억제되지 않는 은닉 대본의 조건<sup>38)</sup>을 다 갖춘 탓에,

[http://fangfang.blog.caixin.com/archives/226151?refurl=http%3A%2F%2Fm.app.caixin.com%2Fm\\_topic\\_detail%2F1489.html](http://fangfang.blog.caixin.com/archives/226151?refurl=http%3A%2F%2Fm.app.caixin.com%2Fm_topic_detail%2F1489.html) (2022년 1월 10일 검색)

37) 은닉 대본을 생산하는 피지배 계층은 자신들의 언설을 공개하는 순간 자신에게 닥칠 위험을 미리 알고 있다. 이 때문에 은닉 대본은 많은 경우 지배 계층이 요구하는 ‘충성의 맹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전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제시되곤 한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피지배 계층은 “필사적인 탄원 행위가 야기할 치명적 위험을 어느 정도 완화”한다. 자세한 내용은 스콧, 앞의 책, “제4장 허위의식 혹은 심한 과장” 참고.

38) 스콧은 은닉 대본이 억제되기 힘든 조건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는 지배자의 통제와 감시 및 억압이 닿기 어려운 격리된 사회적 공간에서 표현될 경우다. 둘째는 이처럼 격리된 사회적 환경이 지배 관계 속에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는 가까운 동료들 끼리만 구성될 경우다.” 팡팡의 일기는 국가 지배 체제가 강력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인터넷 공간에서, 우한에 격리된 시민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에 억제되기 힘든 은

중국 정부에게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그러나 마스크 시위는 광팡의 일기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우선, 마스크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주된 감정은 ‘분노’다. 피지배자가 순종과 복종을 연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지배 관계에서 오는 모욕, 치욕, 분노의 감정들을 통제 가능할 때의 이야기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자율성이 침해당할 때, 지배 관계 속에서 자신 스스로나 가족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을 피지배자가 인지할 때, 분노는 억제되지 못한 채 터져나가고 만다. 의사 리원량이 사망했을 때 중국 인민들이 느꼈던 감정은 바로 자신들의 구성원을 보호할 수 없었다는 절망감이었다. 중국 인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했던 의사의 생명을 지킬 수 없었다는 좌절감에 중국 정부가 리원량에게 훈계서를 쓰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해지자 분노는 견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마스크 시위에 참여한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명백했다. 우선 코로나19 시대의 마스크가 가지는 상징성이 가장 눈에 띈다. 마스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보호 장비이다. 사진 속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쓴 모습은 코로나19 시대의 인류가 닥친 비극을 보여 준다. 일차적으로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은 리원량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생겨난 비극을 우리 모두가 겪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한 마스크는 리원량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모든 네티즌들의 입을 막고 있다. 그리고 그 마스크를 뚫고 나온 다섯 글자는 ‘不能, 不明白’의 다섯 글자다. 그리고 더 하고 싶었던 말들은 종이에 적어 함께 들고 찍었다. 리원량의 입을 막았던 것처럼 네티즌들의 입을 막을 순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또한 단순히 마스크를 쓰는 것만으로도 네티즌들은 성별과 나이, 그리고 직업을 뛰어넘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 사진을 찍지 않아도 #不能不明白 이라는 해시태그로 시위에 동참하는 이들도 많았다. 마스크 시위에 참여한 네티즌들의 모습은 모두 천차만별이었다. 오직 ‘不能, 不明白’가 적힌 마스크만이 공통된 요소였다.

닉 대본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스콧, 위의 책, p.209.

마스크 시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은닉 대본의 환상 속에 남아있던 분노의 공개적 표출과 대응적 공격의 형태였다. 많은 이들이 욕을 뜻하는 손모양을 하거나 욕설이 적혀 있는 종이 쪽지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시위 참여자들은 은닉 대본의 공개적 표현이 위협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적 해방감, 만족, 긍지, 그리고 의기양양한 감정”을 공유하였으며 실제 진위여부와는 별개로 자신들의 행위를 “속임수와 거짓을 대신해 마침내 진리가 말해지는 순간으로 경험”하게 되었다.<sup>39)</sup>

아이핀의 인터뷰 판본은 또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었다. 아이핀의 인터뷰의 다양한 판본은 중국 네티즌들의 문화적 창조물로 볼 수 있다. 이를 생산하는 행위는 하나의 놀이이자 공개 대본을 향한 ‘조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인터뷰 판본들을 생산하면서 네티즌들은 중국 정부의 공개 대본을 공식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 이들은 인터넷이라는 자율성이 보장된 공간에서 자신들만의 놀이의 문법을 개발해냈다. 권력자들, 혹은 검열을 행하는 ‘그들’과 인터뷰를 공유하려는 ‘우리’ 사이에 명확한 선을 그으며 판본 생산에 참여하는 자들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놀이에서 오는 희열의 감정을 공유했다. 판본 생산자들의 행위는 저항이라기보다도 하위문화에 기반한 사회적 연대의 행위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변화의 가망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조차 승산을 만들어내는” ‘웃음행동주의’로 승화시킨다. 권력자들은 공개 행사, 의례 등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상징의 형태로 공개 대본에 새겨 넣는다. 아이핀 인터뷰 판본의 생산은 공개 대본이 가지는 위엄과 가치에 ‘조롱’과 ‘웃음’으로 대응한다. 이는 “통치자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불사(不死)의 이미지를 파괴하는 데 도움”<sup>40)</sup>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네티즌들의 놀이는 많은 부분 카니발을 닮아있다. 네티즌들은 인터

39) 스콧, 위의 책, p.349.

40) 스티븐 크로셔 지음, 문혜림 옮김,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부산: 산지니, 2018년, p.153.

넷 공간이 보장해주는 익명성의 가면을 쓰고 자신의 의도를 감춘 채 ‘판본 만들기’의 축제에 열중한다. 인터뷰 내용의 전달은 더 이상 행위의 목적이 아니다. 검열을 피해 새로운 판본을 만들고, 그것이 검열에 삭제되면 또 다른 판본을 생산하는 쫓고 쫓기는 두더지 게임은 마치 저항과 놀이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인다. 이러한 놀이 이면의 저항성을 중국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판본은 검열에 걸리는 즉시 삭제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처벌은 없었다. “피지배 집단들로 하여금 특정한 규칙 아래 정해진 시간 동안만 반란 놀이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이보다 위험한 형태의 공격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41)</sup>

## 5. 나가며

2021년 10월 21일, 중국 정부는 차이신 미디어를 다른 인터넷 뉴스가 인용 보도할 수 있는 뉴스 미디어 목록에서 삭제했다.<sup>42)</sup> 차이신 미디어는 중국의 검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언론사다. 이 때문에 광광의 일기가 처음 인터넷에 등장했을 때부터 차이신 어플은 광광의 일기란을 따로 만들어 업로드 하는 한편, 차이신의 총편집을 맡고 있는 후수리(胡舒立)는 광광의 일기를 적극 추천하기도 한다. 이후 광광의 인터뷰, 리원량의 인터뷰 등도 차이신 미디어에서 보도하였다. 이번 인용 보도 가능한 뉴스 목록에서 차이신이 삭제된 것은 중국의 검열 제도를 따르지 않았던 것과, 코로나19와 관련된 일련의 인터넷 저항 움직임 속에서 차이신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1) 스콧, 위의 책, p.314.

42) 유세진, “中, 차이신 미디어 인용 보도 가능한 매체에서 삭제”, 뉴시스, 2021년 10월 2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579&cID=10111&pID=10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579&cID=10111&pID=10100)  
(2021년 10월 26일 검색)

중국의 인터넷 검열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데이터 사회를 맞이한 중국 정부가 자신의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과 맞닿아 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중국 인민들의 인터넷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또 중국 정부와 사회 체제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 중국 정부의 인터넷 통제는 점차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일련의 인터넷 상의 사건들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복잡한 양상을 지닐 수밖에 없다.

스콧의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피지배자들의 자유로운 언설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다. 이는 권력의 눈과 귀가 닿지 않는 ‘부대 밖의 광범위한 사회적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피지배자들은 은닉 대본을 생산하며,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고 소통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바로 이곳이 피지배 집단으로 하여금 권력에 대한 공유된 비판을 발전시킬 기회를 제공”<sup>43)</sup>하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터넷 공간이 이러한 자율성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익명으로 유사한 관심을 가진 다른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권력의 통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인터넷의 발달로 하부정치가 발달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본 논문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건은 모두 하부정치를 통해 구현된 은닉 대본의 공개적 선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세 가지 사건 모두 중국의 공산당 통치 체제나 국가 이데올로기를 반대하진 않는다.<sup>44)</sup> 더군다나 팡팡의 일기를 통한 논쟁, ‘마스크 시위’, 그리고 ‘아이편 인터뷰 판

43) 스콧, 앞의 책, p.60.

44)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팡팡은 여전히 국가의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19를 둘러싼 사회 시스템을 비판한다. 리원량의 죽음이 유발한 사회 비판은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추모와 복권, 그리고 사회주의 민주와 중국 헌법 가치 수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서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 아이편 인터뷰 판본 사건에서 네티즌들은 저항의 의도를 숨긴 채, 놀이에 열중한다. 리원량의 죽음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함의는 “백영서 엮음,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서울: 책과함께, 2021” 중 “하남석, 「중국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치사회적 함의」”참고.

본'을 통해 나타난 저항의 움직임은 모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광광의 일기를 둘러싼 논쟁이 길어지면서 네티즌들은 더 이상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었고, '마스크 시위'는 철저한 검열에 의해 해외에서만 간간히 이어지고 있다. '아이핀 인터뷰 판본'은 단발성 놀이로서의 저항으로 끝맺었다. 이는 모두 예견된 일이었다. 그러나 "은닉 대본을 실질적 저항의 대체물이 아니라 그 조건이라고 여기"<sup>45)</sup>게 된다면, 우리는 표면상으로 드러난 이 사건들 이면에 복수의 은닉 대본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베일 뒤에 가려진 은닉 대본들이 얼마나 많으며 무슨 내용으로 창조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수면 위로 드러난 은닉 대본들을 통해 우리는 '분노청년', '소분홍'이 아닌 중국의 네티즌들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코로나19를 둘러싼 중국 인터넷 담론은 복잡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해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경험이 중국의 인터넷 담론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

45) 스콧, 앞의 책, p.323.

## 參考文獻

- 네이션 올프 지음, 강주헌 옮김, 『바이러스 폭풍의 시대 2판』, 파주: 김영사, 2015년.
- 백영서 엮음, 『팬데믹 이후 중국의 길을 묻다: 대안적 문명과 거버넌스』, 서울: 책과함께, 2021.
- 스티븐 크로셔 지음, 문혜림 옮김, 『거리 민주주의: 시위와 조롱의 힘』, 부산: 산지니, 2018년.
- 이광석, 『데이터 사회 비판』, 서울: 책읽는수요일, 2017년.
- 제임스 C. 스크트 지음, 전상인 옮김, 『지배, 그리고 저항의 예술』, 서울: 후마니타스, 2020년.
- 타일러 J. 모리슨 지음, 홍유진 옮김, 『코로나19: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들』, 파주: 열린책들, 2020년.
- 광광 지음, 조유리 옮김, 『우한일기』, 파주: 문학동네, 2020년.
- 김진공, 「중국의 코로나19 사태와 사회 체제의 신뢰 위기」, 『중국어문학지』 제72집, 2020.
- 김태연, 「광광의 『우한일기』와 혐오의 정동(affect)」, 중국현대문학 제97호, 2021년.
- 이희경, 「우한일기 논쟁을 통해 살펴본 공감장의 형성과 투쟁」, 『감성연구』 제23집, 2021년.
- Huang, Y. *The Politics of HIV/AIDS in China*, Asian Perspective, 30(1), 2006.
- John Zrocota, *How to Fight an Infodemic*, World Report, Vol. 395, Issue 10225, Feb.29, 2020.
- 趙凱迪, “對話「傳謠」被訓誡醫生: 我是在提醒大家注意防範”, 『新京網』, 2020년 1월 30일.  
<http://www.bjnews.com.cn/feature/2020/01/31/682076.html>
- 覃建行, “新冠肺炎「吹哨人」李文亮: 真相比平反更重要”, 『財新網』, 2020년 1월 31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131074029/http://china.caixin.com/2020-01-31/101509761.html>

龔菁琦, 金石編, “發哨子的人”, 《人物》, 2020년 3월 10일.

<https://web.archive.org/web/20200329131444/http://boyamedia.com/category/detail/13249/>

“方方回應：我和國家之間沒有張力”, 財新作家方方的博客, 2020년4월11日.

[http://fangfang.blog.caixin.com/archives/226151?refurl=http%3A%2F%2Fm.app.caixin.com%2Fm\\_topic\\_detail%2F1489.html](http://fangfang.blog.caixin.com/archives/226151?refurl=http%3A%2F%2Fm.app.caixin.com%2Fm_topic_detail%2F1489.html)

“신종 코로나 처음 알린 의사 리원량이 작성한 '훈계서'”, 『뉴스1』, 2020년 2월 7일.

<https://www.news1.kr/photos/view/?4043722>

한수연, “중국, 사실상 '코로나 종식' 선언”, MBC 뉴스, 2020년 9월 8일.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03617\\_32510.html](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1700/article/5903617_32510.html)

유세진, “中, 차이신 미디어 인용 보도 가능한 매체에서 삭제”, 뉴시스, 2021년 10월 21일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579&cID=10111&pID=10100](https://newsis.com/view/?id=NISX20211021_0001622579&cID=10111&pID=10100)

열상, 「광광일기 편집수기-아름다운 싸움은 이미 끝났다. 그녀를 위해 정의의 면류관을 남겨둔다」

<https://chinadigitaltimes.net/chinese/639585.html>

아이핀 『인물』 지 인터뷰 판본 52개 모음

<https://blog.creaders.net/u/19770/202003/368208.html>

## Abstract

### A Study on the Discourse of COVID-19 in China's Internet Space

Son, Ju Yeon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Fang Fang's *Wuhan Diary*, mask protests, and a case in which netizens created various editions when an interview with a doctor was deleted due to national censorship. Analyzing discourse of online media, these three events function as 'hidden transcripts' according to James C. Scott's theory of power relations. Analyzing the discourses related to COVID-19 are generating in China's online media, and understanding the antagonistic relationship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public through this analysis is an essential process for understanding China.

**Key words** : COVID-19, Fangfang, Wuhan Diary, Mask Protest, Mask Culture, Resistance as a Game

투 고 일 : 2022. 1. 10. / 심 사 일 : 2022. 1. 15.~ 2022. 2. 15. / 게재확정일 : 2022. 2. 20.